

2023년 08월 2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84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33장 1~13절(구약p.792)

1.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7.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8.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 ◎ 말씀선포 /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을 행복한 승자로 여기는 삶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 셋째, 말과 생각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다. 넷째,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 여섯째,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다. 일곱째, 눈과 가슴과 얼굴에 열정을 가득 품고 살면 행복은 이미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함에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앞을 현재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벽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대신 문제 너머를 바라보게 하

고, 쥐는 삶 대신 베푸는 삶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하고, 운명이라 여겼던 불행 대신 행복을 감히 선택할 선택권을 내 손에 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결심하고 전환하여 행동하는 자에게만 주는 기쁨의 경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긍정의 힘의 효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성도는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고통 속에 밀어 넣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신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불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의 불평이 왜 부당한지를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믿는 자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 1.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과오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며 흠잡을 것들을 찾으시고,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셨다고 원망 또한 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하는 욥을 오히려 나무라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욥의 불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야 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탄식을 단순히 근거 없는 불평이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으로 여긴 것은 엘리후의 선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연약한 인간은 함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향해 금방 불평을 쏟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 욥의 또 다른 탄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원망했습니다. 욥기 30장 19~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고난의 목적과 결과도 당연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만큼 고난을 견디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

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십일 사십 야를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도, 모세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침묵의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이레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21일의 시간 동안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니엘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1~14절에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길고 지루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며 주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긴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270(통214)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 ◎ 폐 회 / 주기도문